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치킨 시켜라/ 쿠팡 모아라/ 이젠 치킨 타임./ 뽕이 울린다/ 치킨이 왔다/ 다린 내개다/ 목은 니꺼란다.”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를 패러디한 ‘판타스틱 치킨 송’이라는 노래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출이나 모임이 어렵다 보니 음식 포장과 배달이 급격히 늘었다. 요즘은 어지간한 음식은 다 배달이 가능하지만 그 중 가장 많은 것은 치킨이 아닐까 한다.

치킨, 짬뽕, 삼계탕, 닭개장, 닭갈비, 탕닭, 닭볶음탕, 닭튀김, 닭발, 닭똥집... 닭이 없었다면 우리 뭘 먹고 살았으며 맥주는 뭐랑 함께 마셨을까 싶은 정도로 닭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식품’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억 마리 이상의 닭이 도축된다. 국민 한 사람이 한 해 평균 먹어치우는 닭은 20마리 정도다. 세계적으로도 닭은 가장 많이 사육되고 도축되는 동물로, 매년 660억 마리가 도축되는데, 2위부터 7위까지(오리, 토끼, 돼지, 양·소, 칠면조, 소) 다 합쳐도 닭의 4분의1도 안 된다. 여기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후 닭의 희생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다. 닭은 동남아시아 일대에 서식하던 야생 조류인데 기

치맥 축제를 기다리며

원전 8천~6천 년경 인류가 달걀을 얻기 위해 이 새를 마당에 들였다. 가족이 되면서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게 된 닭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알 낳기에 쏟아부어 인류의 ‘달걀 자판기’가 되었다. 이처럼 만성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던 인류에게 닭은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되었다. 하지만 닭고기는 여전히 귀해서, 알을 낳지 못하는 폐계를 잡아먹는 정도였다.

그래서 프랑스 앙리 4세는 ‘백성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태평성대 나라로 만들라!’라고 지시하였고, 1928년 미국 대통령 후보 허버트 후버는 ‘모든 가정 냘비에 닭고기를’이라는 구호로 선거 운동을 펼칠 정도였다. 하지만 1960년대 복합사료 공장이 들어서고 기업형 닭 사육이 시작되면서 한 마리를 폭 살이 약간의 고기와 많은 곡물을 여럿이 나누어 먹던 시대는 가고 비로소 온전한 한 마리를 굶고 튀겨 혼자서 먹는 ‘일인 일담’ 시대가 열렸다.

“뭘 먹고 싶은 거 없냐?” 시골 할머니가 묻자 도회지에서 온 손자는 “꼬꼬덕 꼬꼬 치킨이 먹고 싶다”고 대답한다. 할머니는 장에서 사 온 닭을 폭 살이 손자에게 내어놓는다. 그러자 손자는 “이게 무슨 치킨이야. 치킨이라고 했잖아 프라이드! 누가 물에 빠뜨리래?”라고 불만을 터뜨린다. 김을본 할머니와 국민 남동생 유승호가 주연한 영화 ‘집으로’의 한 장면이다.

치킨은 닭과는 다른 음식이다. 사전에도 ‘치킨은 닭에 밀가루 따위를 입히고 튀겨 만든 요리, 굽기도 한다’고 적혀 있듯이, 굽거나 볶는 것은 그냥 닭(닭백숙, 닭갈비, 닭볶음탕...)이다. 닭은 튀기거나 구웠을

때 비로소 치킨으로 승화한다.

치킨에도 역사가 있다. 캔터키 치킨으로 대변되는 미국 출신 치킨은 한국에서는 1970년대 ‘전기구이통닭’으로 시작하였다가, 식용유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후라이드치킨으로 탈바꿈하고, 다시 양념치킨으로 거듭나더니 급기야 청출어람청어람(靑出於藍 靑於藍), 치킨의 본고장 미국으로 역수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치킨은 끼니·간식·안주의 삼위일체를 이룬 대표 ‘국민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치킨점 수는 편의점보다 많고 전 세계 맥도널드 매장 수를 다 합한 것보다 많다. 이는 IMF 구제금융 사태 때 실직한 많은 사람이 치킨점을 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2년 월드컵 당시 치킨을 뜯으며 응원한 많은 국민 덕분이며, 우리들의 맥주 사랑도 치킨 열풍에 한몫했다. 안주 없이 먹기에는 좀 밍밍한 국산 맥주에 치킨은 환상 궁합이었다. 치킨 없는 맥주는 상상할 수 없고 급기야 치킨과 맥주를 합친 ‘치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자랑할 만한 먹거리가 별로 없는 대구에서 2013년부터 매년 여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콘서트 등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치맥 축제(‘대구 치맥 페스티벌’)가 시작돼 크게 성공하였고 대표적인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치맥 축제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못했다. 혼자 먹는 치맥도 좋지만 다 같이 모여 ‘치맥하는’ 그 맛과 분위기에 비할 바 못 된다. 하루빨리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고 다시 치맥 축제에서 ‘치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종교칼럼

2021년 관방제립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 아래로 뭍시 게으르게 강이 흐른다. 강 위엔 오리배 몇 척 동동 떠다니고, 좁은 강변 주차장에서는 주차하려는 차들이 오리처럼 뒤뚱거리고 있다. 길게 이어진 제방 위로 오래된 나무들이 기분 좋은 그늘을 만들고, 나무 아래 평상엔 가족 친지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이 휴일 오후의 즐거운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

적당히 더운 날씨 탓일까, 아니면 기분 탓일까. 사람들은 일요일다운 느긋함과 무방비 상태에 젖어 적당히 복격저린다.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오히려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런 건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인데...’ 하는. 오래된 나무며, 나무 아래 낡은 가계들. 마치 시간을 30년 전쯤으로 돌려놓은 듯한 착각이 든다. 일행 중 한 명이 베트남 갈다고 하던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한 췌 베트남에 갔던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스타벅스에서 혼자 커피 마시는 게 요즘 감성이라면, 낡은 평상 위에서 역시 오래된 스테인리스 냄비 그릇으로 싸구려 국수를 먹는 이곳은 분명 레트로(복고풍) 감성이라 해야겠다.

일요일 오후의 관방제립은 덥고 시골적스럽고, 달아 오른 공기 속엔 찰나의 행복이 흠뻑 녹아 있었다. 다행히 친지들과 함께한 덕분에 나는 자연스레 행락객으로 동화될 수 있었다. 혼자 왔었다면 나 홀로 구경꾼이 되는 다소 불편한 경험을 했을 뻔 했다. 일요일 오후의 유원지에서 느끼는 유쾌하고 무장해제된 듯한 기분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면 결코 느낄 수 없는 감정이다.

‘어떻게 80년대의 느낌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마음 한편에서 동동 떠다니는 일요일 오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하고 싶지 않은, 모순에 가득 찬 삶을 마주하고 있다. 외면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딱히 외면하고 싶지도 않은 익숙하고도 불편한 감정이 의식의 수면 위에서 한가로이 떠다니고 있다.

복직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삶은 종종 부러움과 측은함이 뒤섞인 매우 복잡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아마도 출가자라는 이방인의 신분으로 살아온 긴 세월 탓일게다. 요즘 들어 어떻게 알았는지 출가 전 인연들에게서 이따금 연락이 오곤 한다. 핸드폰 켜 너머의 목소리는 나의 출가 전 호칭을 부르며 반가워한다. 마치 어제 만나고 헤어진 친구처럼 뭉치자 연스럽다. 하지만 먼지 수북한 목은 인연들이 아무래도 내게는 뭉치려 애써한다. 그런 나의 감정이 필시 전달되었을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너머의 말투는 경어와 평어가 적당히 섞여서 어정쩡하게 바뀐다. 출가자로 살아온 지난 시간 그 어디에도 가족이나 친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아니지... 어쩌면 동남아 어디쯤에서 펼쳐져야 할 풍경일, 그래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이 되어 즐겨야 마땅할 풍경을, 삶을 영위하는 일상에서 맛따뜨린 데서 오는 당혹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는 좋을 듯하다. 하지만 어제의 풍경을 사진에 담지 않은 것은 나 역시 그 풍경의 일부로 있었음을 자인하는 명백한 증거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숫타니파타’, 법정 스님 역)

“나 홀로 산다”는 것은 사자처럼, 바람처럼, 연꽃처럼 사는 것이다. 사자처럼 불확실한 삶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에 마음 뺏기지 않고, 바람처럼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연꽃처럼 어떤 욕망에도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 장수할 정도로 나 홀로 사는 것이 대세가 된 요즘이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나 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나 역시 그러하다. 아마도 나는 꽤 오래전부터 홀로 떠도는 나그네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산 듯하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이 그러하듯 나는 다만 나그네처럼 나 홀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뿐, 무소의 뽕처럼 홀로 가지는 못했다.

글쎄... 나그네면 어떻게 나그네가 아니면 또 어떤가. 관방제립의 풍경이 80년대 9시 뉴스의 한 장면이면 어떻게, 베트남의 호이안 거리면 또 어떤가. 강은 흐르고, 또 일장춘몽 같은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고

‘새천년 인재육성 프로젝트’ 성공을 기원하며



강리현 제1기 전라남도 해외유학생 캘리포니아주립대 경제학 박사과정

필자는 전남도가 작년부터 새천년 인재육성 정책의 하나로 시행한 해외 유학생 장학사업의 수혜자로 선발됐다. 그 결과 현재 전남도의 든든한 지원으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는 교육경제학으로, 교육 서비스의 생산 및 배분을 평가하고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것 등과 관련이 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학교 유형에 따라 고급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접근 가능성에 현저한 격차가 존재함을 절실히 체감했기 때문이다. 무안군의 한 면 단위 동네 출신으로, 중학생 때까지 교육열이 낮은 지역에서 고액 사교육이나 영재교육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삶을 살다가 뜻밖의 기회로 과학교에 입학했다. 나를 제외하

고 학생 대부분이 초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사교육을 통해 특목고 입시를 대비해 온 이력이 있었다. 학교로부터 각종 실험 장비와 연구비, 교사의 집중적 멘토링, 대학 과목 수업 등 풍부한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분명 명문고라 할지라도 비특목고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교육 정책, 인재육성 정책 덕분에 교육 격차가 점차 줄고 있는 듯하다. 특목고에 가지 않더라도 실험 프로젝트를 일반고에서도 얼마든지 시도할 수 있게 된 것, 다양한 진로 체험 및 진로 개발의 기회가 여러 학교급으로 확대된 것 등이 그 예이다.

그중에도 전남의 ‘전남 스타 200인’이나 필자가 수혜를 받은 해외 유학생 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재능 사장 방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된다. 인재들의 재능 개발을 안정적으로 돕고 경제적 문제로 인한 중도 이탈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이다.

필자를 예로 들면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는 박사과정 경비를 모두 감당하기 베풀해 유사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중도 포기의 위험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전남 해외 유학생 장학금 덕분에 세계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학업과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런 인재육성 정책이 비용보다 높은 편익을 가져올지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금을 대폭 투입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이 남을 수 있다. 단, 수혜자 중 한 사람이 필자의 다짐을 감히 일반화하건대, 인재육성 정책을 통해 파격적 지원을 받은 수혜자들은 추후 어떤 형태로든 성공의 결실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할 것이라 믿는다.

수혜자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직접 인재육성재단에 기금을 기탁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새싹들의 멘토를 자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공의 밑거름을 제공해 준 사회에 보답할 수 있다. 이런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재육성 정책 운영 기관의 ‘진짜 인재’ 선별 능력과 수혜자의 역량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중시하는 경제학도로서, 최근 야심 차게 도입된 전남의 인재육성 정책이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소망한다. 인재 발굴과 지원, 성과 평가 단계를 꾸준히 다듬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 투자가 가진 고유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남 인재육성 정책의 수혜자인 필자 역시 인재육성이라는 정책 목표에 성공적으로 부응할 것을 약속드린다.

社說

‘광주관광재단’ 1년 성과도 없고 비전도 없고

광주관광재단이 출범 1년을 맞이했지만 ‘관광 활성화’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관광재단은 지난해 7월 ‘1000만 국제 관광도시’를 목표로 광주만의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찾아 차별화된 광주관광을 실현하겠다는 야심 차게 출범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성과도 없고 비전도 없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열린 광주시 제5기 관광산업발전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광주관광재단이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랜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보여 주기식 이벤트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이 자리에서 남상숙 관광재단 대표의 예술관광사업단을 통한 예술관광도시 브랜드 정립과 ‘2021년 비엔날레 여행의 해’ 공표, 광주예술센터 개관, 광주관광 로고송 제작 등을 그동안의 성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들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과 목표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비전을

담은 정책조차 없고 대부분 단순 행사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뿐이라며 서류상에만 실적이 있는 ‘페이퍼 정책’이라고까지 혹평을 서슴지 않았다. 위원들의 비판에 남 대표는 “지금 비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이 또한 적절한 태도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위원회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광주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이자 재단 1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자리였기 때문이다.

외부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평가인 만큼 아무리 손소리일지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했다. 관광재단은 이 같은 따끔한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들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광주시도 광주관광의 그랜드 비전 제시 및 정책 발굴을 재단 측에만 미뤄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재단에 힘을 실어 주고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민주 도시’ 질서의식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광주 시민의 준법·질서의식이 매우 미약하다는 사실이 통계로도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정차위반 등 광주 지역 질서 위반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1074억 1467만 7000원이었다. 이는 광주 시민 1인당 평균 7만 4000원꼴인데 전국 평균인 4만 8000원의 1.54배 수준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송연석(무소속, 경북 김천) 국회의원이 잇그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같은 기간 전남 도민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656억 1115만 6000원으로 1인당 3만 5000원이었다.

광주 지역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정차 위반이 609억 1263만 9000원으로 전체 과태료 부과액의 56%를 차지했으며, 등록된 자동차 1대당 9만100원 꼴이었다. 자동차

한 대당 과태료는 광주가 서울(10만 200원)에 이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에서는 230억 3367만 8000원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자동차 1대당 2만 1800원 수준이었는데, 대당 부과액이 시도 중 가장 낮았다.

민주 성지 혹은 선진 도시를 자부하는 광주의 시민의식이 이 정도라는 사실은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다. 시민의 공공의식 수준을 보여 주는 척도는 질서의식이기 때문이다. 정해진 룰과 규칙을 지키는 것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안녕을 기약하는 일이기도 하다.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당국의 단속과 계도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시민정신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한때 배가 나오거나 살이 썩어 사람을 부러워하던 시기가 있었다. 6·25전쟁 이후 먹고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에는 살집이 좁은 사람이나 덩치 큰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일부 국가의 남성은 아직도 약간 배가 나오고 피부 톤이 밝아야 인기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살이 과도하게 썩어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심지어 비만한 사람을 무조건 게으르거나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치부하는 편견마저 생겨났다. 이는 한 개인의 비만이라는 현상을 그 사람의 직간접적인 습관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당연히 비만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이 기존의 관념이었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비만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프랑스 식품영양학자 ‘피에르 베일’은 다이어트는 비만인이 혼자 열심히 칼로리를 따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복근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붉은 살코기만 먹고 사는데 좀처럼 고혈압이나 혈

관 질환 또는 암 등에 걸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반면 선진국 사람들은 날마다 칼로리를 줄여도 비만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피에르 베일은 비만의 해결책을 사회 환경적인 문제에서 찾는다. 예를 들어, 풀을 먹고 자란 소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데 이는 지방세포가 커지는 것을 막는 물질이다. 반면 축산업을 통해 길러지는 소는 ‘오메가6’가 많은 콩과 옥수수 등 사료를 먹는데 이는 지방세포를 키우는 성분이다. 채소도 마찬가지로

지르물판에서 자란 것엔 비배인공비료로 길러진 것은 오메가6 성분이 많다. 이쯤 되면 비만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WHO(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995년에 비만을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비만은 당뇨·고혈압·고지혈증·암 등 온갖 심각한 질환까지 유발하는 명백한 질병이다. 질병의 치유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가 치매나 암 치료에 적극 개입하듯이 비만 치료에도 더욱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채희중 사회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예 향 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52	체 육 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